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5주 -

- 조용한 기도 (Silent Prayer) 시편 96:1-7 다함께
- 찬 송 (Opening Hymn) 39장(새 39장) 다함께
-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13번(새 21번) 다함께
- 공동기도 (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어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러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를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항상 저희 눈에 십자가를 밝히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넘쳐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계시록 3:1-6 인도자
- 찬양 (Anthem) 시온성가대
- 말씀증언 (Sermon) 이송원 목사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5)

- 봉 헌 (offering) 350장(새 320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 (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 (Hymn) 215장(새 426장)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지난 주에 있었던 교인총회 투표 결과에 따라 한마당교회는 미연합감리교회(UMC)에 남아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3. 다음 주 친교 후 임원회로 모입니다.
4. 오늘 친교 후 믿음 속회로 모입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허춘희권사님, 죄은진권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 요한복음 8:29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이기적인 신앙, 곧 기복주의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사귀는 통해서 누리는 영적이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삶의 동기와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분의 계명,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행위주의에 빠져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늘 하나이셨고,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늘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말씀묵상) 요한계시록 3:1-6

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 주님께서 사데 교회의 상태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2. 사데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2-3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4-5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는 안팎으로 항상 존재합니다. 외적인 것은 오히려 분별하기 쉬운데, 문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서서히 잠식시키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요소로는 영적인 게으름과 안일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는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내부적인 위협이 가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사그라짐에 따라 죄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그것은 행위를 통해 증명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바르지 않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닌 점점 정욕과 탐심을 따라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겉모양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행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와 경건 생활, 구제와 헌신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교적 활동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혼합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를 버리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데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온갖 화려한 외형을 갖추었지만, 실상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하며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 향락을 추구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은 깨워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과 계명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주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이때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는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취볼 때 살았으나 죽은 모습이라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어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